

# 전라북도 동남부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전라선과 17번 국도를 따라서~

과정명 : 제12기 핵심리더

교 번 : 52번

성 명 : 곽길한

# 목 차

I. 서론 .....	4
1.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방법 .....	
II. 전라북도 관광실태 .....	5
1.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	5
2. 관광성향 분석 .....	6
3. 관광객 여행형태 .....	6
4. 관광소비실태 .....	6
5. 관광객 이동경로 .....	6
III.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7
1. 일반현황 .....	7
2. SWOT 분석 .....	7
3. 기본목표 .....	8
IV. 동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	9
1. 전라선 폐철도선을 이용한 걷는 길 조성 .....	9
2. 폐역사 개발 .....	11
3. 국도17호선 폐선을 이용한 이동수단 체험길 조성 .....	12
4. 온천, 워터파크, 실내스노우파크, 컨벤션을 결합한 종합 휴양지 조성 .....	13
5. 모형 산업 육성 및 RC 클러스터 육성 .....	15
6. 오수 의견공원과 개 테마파크 .....	16
7. 산악철도 개발 .....	17
8. 친환경적 방목형 목장 .....	19
9. 중앙콘트롤 센터 .....	20
10. 체계적인 관광종사 인력 양성 .....	20

V. 결론 .....	21
-------------	----

<참고문헌> .....	22
--------------	----

## 표 차례

<표 1> 전북권 관광객 증가 추이 .....	5
<표 2 > 시군별 방문 관광객 방문 수 .....	6
<표 3> 각 시군의 일반현황 .....	9
<표 4> 폐선부지 활용 사례 .....	11
<표 5> 전라좌도 오수도 관할 역참 .....	21
<표 6> 폐역사의 대표적 활용사례 .....	31
<표 7> 국내외 폐도로 복원사업 .....	51
<표 8> 타시도 컨벤션 센터 운영 현황 .....	61
<표 9> 국내외모형 항공기 대회 .....	81
<표 10> 세계 각국의 산악 열차 운영 현황 .....	102
<표 11> 운봉고원 제산성 현황 .....	12

## 그림 차례

<그림 1> 컨벤션센터의 전국현황 안내도 .....	61
<그림 2> 운봉지역 관방유적 .....	12
<그림 3> 전북 동부지역 산성의 분포와 오수~장수, 장수~무주, 장수~남원 간 산악철도 예정도 .....	2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전라북도는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은 만성적인 낙후상태를 보이고 지역으로 이런 만성적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에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해오고 있으며, 동부권 발전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10년간(2011~20)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해 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전라북도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다 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OECD 지역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낙후지역 유형 구분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과 소득세할주민세를 참고하여 분류한 연구에서 남원은 중간이상의 접근성과 중간 이상 소득세를 가진 지역으로 분리하였고, 인근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지역은 지역접근성이 중간 값 이하, 소득세할주민세 중간 값 이하의 유형을 가진 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런 최악의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자원의 잠재력 재고를 위한 생태환경 보전과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최근 들어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군산,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은 매년 방문객수가 약 500만 명이 이상이 다녀가는 전라북도 관광의 허브라 할 만큼 명실상부한 전북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 전라북도 관광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지역의 관광특징은 오래 동안 머물지 않고 1일 정도 숙박하고 최종목적지인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단기 체류형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은 당일 여행 시 25,973원, 숙박 여행 시 68,534원 으로 약 2.6배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지역 관광을 정주형 관광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관광의 5요소는 관광객, 정보, 교통, 관광매력물, 서비스&시설로 구성된다. 본고에

서는 낙후된 동남부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교통요소, 관광매력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서비스&시설 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적합한 입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의 거점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므로써 관광객의 증가, 체류기간 연장 및 재방문을 유도와 같은 관광객의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전라북도 현황, 개발계획, 역사자료 등을 검토하는 문헌조사

## II. 전라북도 관광실태

### 1. 전라북도 관광객 현황

전라북도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전북은 68,628천명으로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 하였다. <sup>13)</sup>

(단위:천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북	47,457	51,090	63,357	63,501	68,628
내국인	47,137	51,497	62,859	63,375	68,458
외국인	320	411	497	126	170

<표 1> 전북권 관광객 증가 추이. 관광공사 자료 발취

(단위:천명)

시군	2010	2011	2012
전주시	5,330,049	6,186,622	7,130,440
군산시	9,516,161	9,179,233	9,002,760
익산시	2,899,811	3,081,000	3,470,577
정읍시	4,139,498	4,040,772	4,346,600
남원시	4,273,838	4,388,672	4,619,827
김제시	3,278,124	3,657,461	4,386,485
완주군	3,895,924	4,557,791	4,468,578
진안군	1,090,031	1,118,791	1,402,883
무주군	7,468,293	7,684,583	7,260,992
장수군	774,578	800,186	904,850
임실군	1,465,574	1,681,743	1,842,396
순창군	2,284,012	2,466,626	3,036,260
고창군	5,539,542	5,860,981	6,253,440
부안군	11,402,330	8,841,805	10,273,159
계	63,357,765	63,546,266	68,399,247

<표 2 > 시군별 방문 관광객 수. 관광공사 자료 발취

## 2. 관광성향 분석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관광객이 21.1% 차지 수도권지역 관광객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40대 관광객이 54.3%, 기혼자의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라북도 관광객 중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관광객의 비중은 22.1%로 2011년(11.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 역내 관광객의 비중은 2011년 62.2%에서 40.5%로 감소하였음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 관광객의 54.3%를 차지하였고, 기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관광객 여행형태

관광객의 1인당 평균여행일수는 1.64일 이었고, 숙박비중은 2011년엔 29.9%, 2012년엔 40.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숙박 시설은 숙박시설은 야영장(25.6%)과 콘도(21.0%) 이용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핵심목적지는 부안군(12.1%), 전주시(10.5%), 남원시(7.4%), 정읍시(7.3), 군산시(7.2%)로 조사 되었다.

## 4. 관광소비실태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1,691원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약 15%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식음료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관광객 이동경로

전북 관광객의 80.1%는 전북의 한지역만 방문 주로 전주를 방문, 전주~부안, 전주~임실, 전주~남원을 방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목적지로 타 지역 관광객은 무주군, 부안군, 남원시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전북을 방문객의 성향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3~40십대의 기혼의 전주, 부안을 중심으로 1.6일 정도 머무르면서 약 6만 2천 원 정도를 쓰고 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의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3~4일 정도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정주형 관광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1. 일반현황

전주 남원 간 국도 17번 선 즉 춘향로와 전라선은 전라북도의 동남부 내륙을 중 단하는 주요 간선망으로 전주 동남부, 완주군 상관면, 임실군 관촌면, 임실군 오수 면, 남원시 덕과면 , 사매면을 지나는 도로이다.

전라선은 전북 익산에서 추발 호남의 중남부 산악지역을 종주하는 철도노선으로 1914년 이리 ~ 전주 구간을 건설을 시작으로, 1931년에는 전주~남원, 1933년에는 남 원~곡성, 1936년에는 곡성~순천 간을 건설하고 1937년 이미 건설이 완료된 순천~여 수간 구간을 최종 연결하므로서 전라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전라선과 수평으로 달리는 전주 ~ 남원 간 국도 17호선은 일제에 의해 1913년 전주 ~ 순천 간 2등 도로로 완성된 도로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서 경 기도 용인시 천인구 양지면 양지 나들목에 이르며, 전라북도 구간은 완주군 운주면 에서 남으로 전주, 완주군 상관면, 임실, 오수, 남원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전 주 남원간의 도로는 춘향로라 칭하고 있다.

이 지역은 노령산맥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산간 지대로 동북~서남으로 뻗친 서 너 가닥의 산줄기가 이 지역을 뒹다시피 하고 그 골짜기로 섬진강의 본류와 지류가 흘러가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위치한 중용 도시인 상관, 신리, 관촌, 임실, 오수, 남 원은 큰 골짜기에 둘러싸인 분지에 발달되어 있다. <sup>18)</sup>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완주군
면적	752.69km <sup>2</sup> (전북9.3%)	597.2km <sup>2</sup> (전북7.4%)	533.54km <sup>2</sup> (전북 6.6%)	820.56km <sup>2</sup> (전북10.24%)
인구	87,775명(전북 4.7%)	30,593명(전북 1.6%)	23,386명(전북 1.3%)	85,119(전북 4.6%)
세대수	36,425	13,879	10,464	35,099
행정구역	1읍 15면 7동	1읍 11면	1읍 6면	2읍 11개면

<표 3> 각 시군의 일반현황

## 2. SWOT 분석 <sup>12)</sup>

### ■ 강점

- 전주~순천 간 고속도로 개통, KTX 전라선 완공에 따른 외부 관광객 접근성 향상
- 내륙교통의 요지
- 섬진강 상류의 청정 수자원 보유
- 개발에서 소외된 탓에 잘 보존된 청정환경자원과 이미지
- 전형적인 농산촌형으로 농촌관광의 인프라 확보
- 필봉농악, 애견문화, 판소리 등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산재
- 경쟁력 있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달
- 광주와 전주의 배후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

### ■ 약점

- 1·2차산업 중심의 영세적 지역경제 기반
- 취약한 제조산업
- 인력, 제원 등 자립적 지역 발전역량 부족
- 완주, 관촌, 임실, 오수, 남원으로 생활권역이 분화
- 청정한 환경으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어려움
- 숙박, 레저 등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경유형 관광지
- 고령화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
- 교육, 문화, 체육 시설과 같은 주민 거주 인프라가 부족
- 지역관광자원의 연계성 부족
- 경관위주의 관광사업

### ■ 기회

- 광역 교통체계 구축으로 대도시 접근성 강화
- 주 5일 근무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체험문화, 관광,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 위협

- 교통체계발달로 인근 대도시로의 지속적 인구 유출
- FTA 등으로 축산, 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역 소득기반 약화
-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천수질 등급 강화로 지역 개발 사업 타격

- 인접 시·군과의 관광경쟁 심화
-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필요인력 부족

### 3. 기본목표

- 전북 중남부권 산악지대의 문화, 관광, 체험, 치유의 장으로 육성
- 지나가는 관광에서 정주형 관광육성 (3박 4일을 목표로)
-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 주민의 삶 개선

## IV. 동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 1. 전라선 폐철도선을 이용한 걷는 길 조성

#### ■ 현황 및 추진배경

- 전라선의 여객 및 화물 물동량향의 증가 - 선로용량 증대와 고속화 필요성 대두.
- 복선화와 전선화 공사 실시(공사기간 1998.11.18. ~ 2002.10.15.).
- 이 과정에서 다량의 철도폐선 부지가 발생(전국적으로 465.5km, 면적 10,551,175m<sup>2</sup>).
- 전라북도 구간은 약 84.5km 정도 폐선 부지 발생.
- 폐선부지의 특성상 - 농로, 마을길, 폐지로 방치 -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큼).

#### ■ 개발사례

구분	활용방안	사례	
		국내	국외
도시지역	도시 내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 기린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캠브리지 guided Busway</li> <li>• 파리 세느 계곡선 노면열차</li> <li>• 미국 샌디에고 LRT 등</li> </ul>
	도시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경전선 푸른길공원</li> <li>• 나주 호남선 자전거테마파크</li> <li>• 수원 권선구 수인선 철도부지</li> <li>• 서울 송파구 부곡~도농간 철도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High Line</li> <li>• Washington &amp; Old Dominion Trail 등 미국 RTC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다수의 Trail</li> </ul>
	기타 도시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송파구 부곡 도농간 철도부지 :생활폐기물 집하장, 재활용 수집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파리 Viaduc des Arts : 고급상가 및 녹지축 조성</li> <li>•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li> </ul>
비도시지역	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경 철로자전거</li> <li>• 정선 레일바이크</li> <li>•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펜실베니아 Kokosing Gap Trail : 야생 생태 체험코스</li> </ul>
	자연으로 회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Somerset &amp; Dorset Railway</li> <li>• 포트랜드 워터스프링 길 등 미국 RTC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다수의 Trail</li> </ul>

<표 4> 폐선부지 활용 사례

- 폐선부지 주변의 토지이용밀도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 도시지역(교통자연, 도심공원), 비도시지역은(관광자원, 자연회귀).<sup>9)</sup>(표4)
- 전주시 1981년 동산~신리 구간의 이설( 전주시청, 기린로)

- 전주 ~ 남원 간 폐선부지 자연경관이 수려 - 관광자원으로 개발

■ 역사적 배경

- 정유재란 시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길
- 호남의 6개 찰방역<sup>1)</sup>중 삼례역, 오수역이 있던 길로서 전라좌수영, 경상우수영으로 가는 길목(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함)
- 관촌면은 삼례도에 속한 오류역이 있었음
- 오수면 오수리는 오수찰방역(관할지 남원, 전남 곡성, 구례, 순천, 여수, 광양)의 11속역을 관할

	역명	현지역		역명	현지역
1	오수(樊樹)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7	낙수(落水)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2	동도(東道)	남원시 도통동(동도리)	8	양률(良栗)	순천시 남제동 양률교 부근
3	응령(應令)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새터	9	덕양(德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4	창활(昌活)	남원시 금지면 대성리	10	잔수(潺水)	구례 남초등학교
5	인월(引月)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시장)	11	익신(益申)	광양시 광양읍 익신시
6	지신(知申)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신흥마을	12	섬거(蟾居)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표 5> 전라좌도 오수도 관할 역참

■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사람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전용 길을 조성.
- 경관이 아름다운 관광길조성(메타세콰이어길, 과수원길, 벚꽃길, 치유의 길, 명상 길, 상록수 길, 대밭 길 등)
- 주변에 소극장, 공연장, 공원, 휴게실, 식당 등을 조성 관광객의 편의 도모 및 지역민의 문화공간 확보.
- 버려진 철도 노선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보
- 적극적 선 개발을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우위 확보 - 표준안 제시
- 국토대장정 종단 행사, 군 행군 등을 길거리 축제화 - 관광객 유치

1) 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말 동학혁명까지 국가가 관리 유지하는 역로(驛路)이다. 역은 중앙에서 파견된 종6품의 찰방이 감독하는 관청으로 공문서의 전달, 물품의 운송, 공무로 왕래하는 관리들의 숙박 등에 편의를 제공해 지방관청으로 약 30리마다 설치되어 있었다.<sup>2)</sup>

- SLOW 관광을 유도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효과

## 2. 폐역사 개발

### ■ 현황 및 추진배경

- 전주 ~ 남원 간에는 신리, 남관, 관촌, 임실, 오류, 봉천, 오수, 서도, 산성, 남원 10개역),
- 남관역, 오류역 - 폐역, 신리, 관촌, 오류, 서도, 산성역 - 무정차
- 방치되고 있는 역사들에 대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sup>14)</sup>
- 남원 서도역 - 역사, 부속거물, 철로 등이 잘 보존 (관광장원으로써 가치가 큼)
- 오수역 - 철로는 철거된 채로 역사와 부속건물이 보존
- 폐역들을 방치시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큼 - 적절한 보존과 개발대책이 필요

### ■ 개발사례

- 폐철도역의 개발은 접근성과 관광자원성을 기준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함

역명	활용현황
망상	하계직원배치 해수욕장
삼척해변	삼척시 소유, 바다열차 운행
평촌	평촌 간이역 예술제 개최
내수	대한통운입대사무실 임대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운영
구절리	레일바이크 운영
(구)곡성	기차마을
가은	레일바이크 운영
불정	레일바이크 및 테마펜션
강촌	Graffiti 테마역(문화공간 조성)
접촌	88무지개 바람개비 동산

표 6 폐역사의 대표적 활용 사례

### ■ 추진계획

#### ● 사매역

-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역사, 부속건물, 철로가 유지되고 있음)
- 주변에 혼불 문학관이 있어 문화적 연계 가능성이 높음
- “밤에 걷는 철로길 개발”(전국적으로 야경을 제외한 밤풍경 관광행사가 없음)
- 혼불에 관련된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테마 개발

● 오수역

- 오수찰방역 복원(관리들의 여행문화 체험), 전통숙박시설 조성
- 전통 체험형 이동 수단(말, 마차, 가마 등 승용기구) 관리역(출발, 종착역)
- 역사주변을 60-70년대의 추억의 거리(다방, 막걸리집, 방아간, 떡집, 재현) - 살아있는 세트장
- 체험형 미니어처 기차박물관 개설 (기차 마니아들 유인)

● 관촌역

- 조선시대 삼례역도의 오원역이 있던 곳(오원역을 복원 전통숙박시설 조성)
- 주변에 35사단, 6탄약창 - 시대별 군 관련 테마형 숙박시설 조성
- 미니터리 박물관 조성

■ 기대 효과

- 전통적 기능을 상실한 역을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활용

### 3. 국도17호선 폐선을 이용한 이동수단 체험길 조성

■ 현황 및 추진배경

- 차량의 성능 향상, 자동차 전용도로 확대, 선형작업 등으로 폐선 증가
- 오수, 덕과, 사매, 촌향이 고개 약 10km 구간
-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공사가 더욱 진행 - 폐도로 부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이용 방안이 요구 됨.

■ 개발사례

-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에서는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을 제외하고 생태복원형으로 복원
-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산악지형에 있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 등으로 지속적 관리가 어려워 생태형 복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국내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고속도로(192.4Km)</li> <li>• 여주JCT 생태습지</li> <li>• 옥천터널 김치숙성고</li> <li>• 월정사 전나무길무등산 관광도로</li> <li>• 담양 메타세콰이어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B313 도로 복원</li> <li>• 독일 A8도로 확장 복원</li> <li>• 독일 A81도로 확장 복원</li> <li>• 영국 Camley Street Naural Park</li> <li>•</li> </ul>

<표 7> 국내외 폐도로 복원사업

■ 추진계획

- 본 구간은 평지에 조성된 길(덕과, 사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
- 생태형 복원보다는 체험형 관광도로와 생활도로로 이용
- 우리 조상들이 이동하는데 사용한 말, 나귀, 당나귀, 노새, 사인교, 남여(藍輿), 외바퀴 수레 초현, 평교자, 보교, 공주 또는 응주가 타던 덩, 왕의 가마 어연, 말이 끄는 수레, 소달구지, 인력거 등
- 내연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수단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길을 조성 추진

4. 온천, 워터파크, 실내스노우파크, 컨벤션을 결합한 종합 휴양지 조성

■ 추진배경 및 현황

- 전주 혁신도시로 농업관련 연구기관 대거 이전
- 한국식품연구원 이전과 관련 기관 이전으로 식품·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전통문화교육원, 한민족 문화교육 및 체험네트워크, 전통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한지·한복·한식 등 한브랜드 허브 도시로 육성을 계획,<sup>12)</sup>
- 탄소산업 육성에 따른 기업체의 입주,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주와
- 김제 씨드(seed)클러스터 입주 등
- 전라북도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 회의 및 전시 장소 필요
- 전북은 추진논의 중이며 전국적으로 11개가 운영되고 있음.

센터명	규모		운영주체
	전시장	회의실	
CECO	7,827m <sup>2</sup>	2,784m <sup>2</sup>	주식회사 코엑스
COEX	36,027m <sup>2</sup>	8,556m <sup>2</sup>	주식회사 코엑스
KINTEX	108,165m <sup>2</sup>	13,118m <sup>2</sup>	한국국제전시장주식회사
BEXCO	26,508m <sup>2</sup>	6,775m <sup>2</sup>	(주)백스코
EXCO	22,716m <sup>2</sup>	6,377m <sup>2</sup>	주식회사 엑스코
KDJ Center	9,072m <sup>2</sup>	2,308m <sup>2</sup>	김대중컨벤션센터
ICC Jeju	2,394m <sup>2</sup>	5,701m <sup>2</sup>	(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전DCC	2,520m <sup>2</sup>	6,738m <sup>2</sup>	대전마케팅공사
송도Convensia	8,416m <sup>2</sup>	4,452m <sup>2</sup>	인천도시공사

<표 8> 타시도 컨벤션 센터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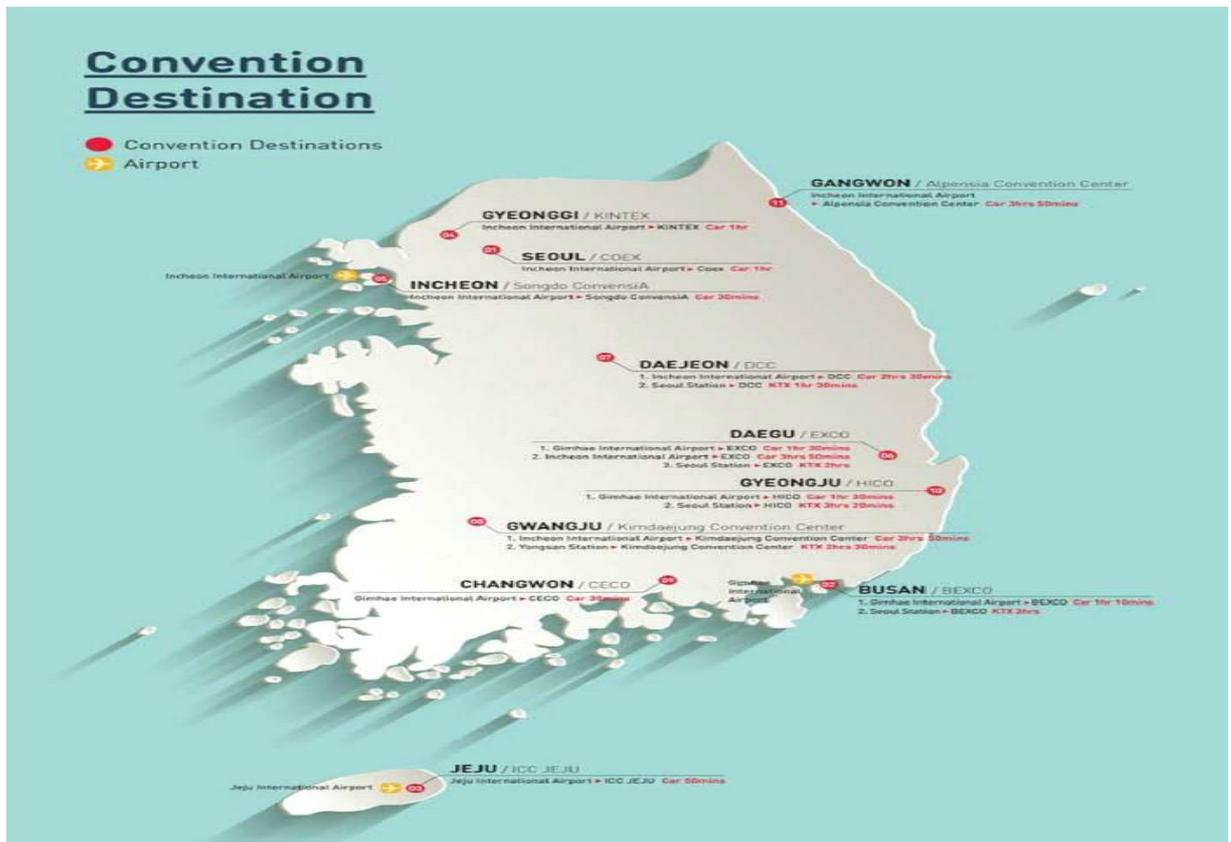


그림 1 컨벤션 센터 적국 현황 안내도

■ 컨벤션의 효과 및 중요성

- 세계경제의 확산에 따라 국제회의 중요도 증가.
- 시장규모가 커 연관 사업에(숙박 호텔업) 영향과 승수효과가 큼
- 경제적 효과 - 종합적 서비스 산업으로 회의장, 숙박업, 음식, 운송업, 관광업 등 사회 각 산업에 파급효과가 큼(고용증대와 세수확보).
- 정치적 효과 - 국제간 정치교류 확대 국제지위 향상
- 사회적 효과 - 지역민의 자부심 및 의식수준 향상, 각종시설 정비, 환경개선, 고용증대 등으로 사회개발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 관광적 효과 -참 홍보강화로 관광홍보효과, 대량의 관광객 유치, 장기체류형 관광 유발, 계절에 영향없이 비수기 관광진흥에 이점이 있음.

■ 컨벤션 도시 선정요건

-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유인력 있는 관광자원, 편리한 접근성  
충분한 숙박시설 등 선정요건

■ 완주군 상관면 컨벤션 지구선정 요건

- 완주군 재정자립도(29.5%) 전북도에서 1위
- 주변에 한옥마을, 모악산, 만덕산, 죽림온천, 편백나무 숲 등
- 17번 국도, 21번 우회 도로, 전주 순천간 고속도로 상관 IC 교통여건 양호
- 숙박시설은 죽림 리조트 등 이 조성되 운영중

■ 추진계획

- 5,000이상 수용 능력의 컨벤션 건립
- 농·식품·탄소 관련 특화 컨벤션
- 테마형 온천 개발
- 온천수 워터파크
- 스노우파크(실내 스키장)
- 편백나무 숲을 이용한 친환경적 숙박단지 조성
-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계절 전주근교 관광단지 육성.

■ 문제점

-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정부의 관심 부족
- 유치, 기획, 준비, 개최, 운영 등 관련업무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정보 부재
- 숙박, 교통시설 부족(공항의 부재)

## 5. 모형 산업 육성 및 RC 클러스터 육성

### ■ 추진 배경 및 목적

- 5일 근무의 정착, 소득수준의 증가로 취미 레저 산업비약적으로 발달
- 어른의 장난감으로 여겨지던 radio control 작동완구 시장 급 성장
- 한국모형항공기협회 지부100개(회원수 천오백여명, 동호인은 약 3-5만)
- 두터운 마니아층이 확보하고 있어 미래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크다.
- 국내외적으로 많은 대회 개최, 관람객 증가 추세
- 관련 모형에 대한 관심도 고조
- 제조, 대회 활성화를 통해 RC 메카로 거듭나야 함

국내	국외
코롱 Futaba 배 전국비행기 대회	제트국제 월드 마스터즈(스위스)
공군참모총장배 대회	탑건(미국)
전국청소년 모형항공기대회	
서울국제모형항공기 대회	
육군참모총장배 모형헬기대회	

<표 9> 국내외모형 항공기 대회

### ■ 추진계획

- RC 기기운용에 적합한 오원강, 사선대 호수, 야산, 운동장 등을 보유.
- RC 관련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 (학생부-초등, 중등, 고등, 성인부).
- 폐교, 농공단지 등에 관련 제조 공장, 공방 유치 - 이주업체 세제혜택
- 모형(목업)박물관 건립 - 각 종 전시회 등에서 전시된 목업 또는 모형을 전문적으로 수집 전시 -관광객 유치

## 6. 오수 의견공원과 개 테마파크.

### ■ 추진 배경 및 목적

- 큰개 樊오나무 수 樹지명에서 지역의 유래를 알 수 있음.
- 천 년 전 김개인과 그의 목숨을 구한 충성스런 개의 설화가 전해 내려옴.

- “오수의 개”문화 관광지 조성 사업(1996 ~2001) 추진.
- 핵가족, 1인 가족 등 가정형태의 변화로 반려동물시장 급속 성장(약3조원)
- 동물병원, 애견미용, 훈련, 번식, 사료 등 관련 산업 급속 성장
-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과 동반 반려동물시장 급속 성장
- 반려동물 산업 육성, 산업화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 활용

■ 추진계획

- 전국 규모 애견 콘테스
- 전국 규모 애견 미용 대회, 성형 대회
- 전국 규모 견 수영대회, 마라톤 대회 개최
- 전국 최초 개 동물원 개장(약 800여 종)
- 개 전문 난치성 전문 동물병원(암, 당뇨, 비만, 인플란트 등 전문치료) 및 요양 시설 개설 -전북대 수의과대학과 연계
- 개 훈련소 건립
- 개 장묘산업 추진 (개 화장장 및 수목장 추진)
- 인증된 전문 번식 장 건립 - 외국시장 개척

## 7. 산악철도와 산지 관광 육성

■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북 면적 70% 이상은 산악지역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요구됨.
- 전라북도의 지붕인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을 연결하는 관광수단 요구.
- 도로망이 빈약 - 접근성이 떨어지며 자동차 위주의 관광
-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마비,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환경 훼손, 로드킬(road kill)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sup>6</sup>
- 산악철도의 장점
  - 자체가 관광상품,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 운행, 교통약자 배려, 일정한 운행 주기-안정적 운행, 친환경적 교통수단, 기존철도와 연계 관광가능<sup>17)</sup>
- 막대한 건설비용(km당 200억)과 환경보호 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높음
- 세계 각 국은 산악지역에 산악열차를 건설.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음
- 선로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지역 원활한 소통을 통한 격차 해소.

운영국가	철도명(완공년도)	운행거리(km)	비고
인도	· 다르질링 히말라야 철도 (1881년)	88.48	세계문화유산
	· 날기리 산악철도(1908년)	45.88	
	· 칼카-심라 철도	96	
스위스	· 펠라투스 산악열차(1889)		
오스트리아	· 젤머링 철도(1854)	41	세계문화유산
일본	· 하코네 등산열차(1919)		
노르웨이	· 플롬 산악철도(1940)	20.2	

표 10 세계 각국의 산악열차 운영 현황

■ 추진계획

- 임실 오수~장수 간, 장수 ~ 남원 아래봉, 장수 ~ 무주 덕유산 약60km 산악철도 건설.
- 전라선 구간의 오수역과 연계 교통 연계 강화.
- 지역의 문화유산 개발 (백제,신라, 가야의 고대 성, 보루, 봉루 등의 관방문화, 고대 가야계 고분군 등)
- 철로변에 대단위 방목장 조성 산악관광 유도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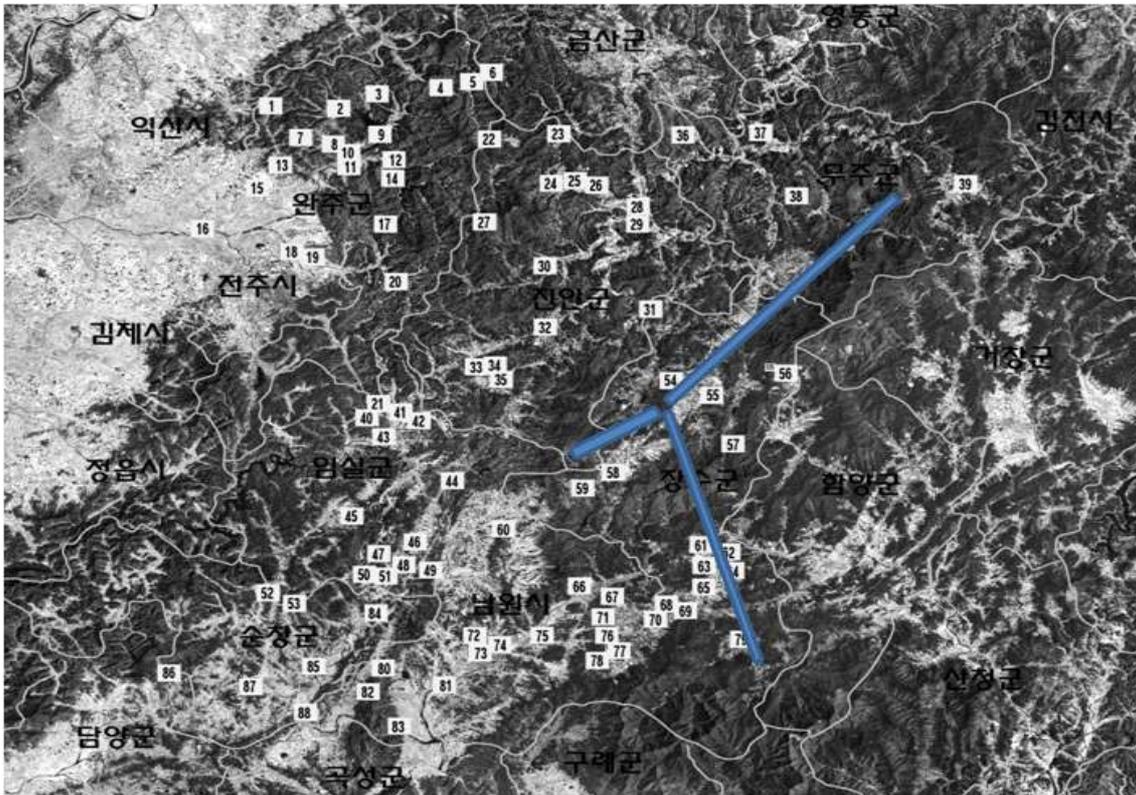
- 임실, 장수, 무주, 남원 운봉 등 산악지역으로 정시성을 가진 안전한 교통수단을 운영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증가로 지역 소득 증가



번호	산 성 명	소 재 지
10	성산리합민성	인월면 성산리
11	봉화산봉수지	아영면 구상리 봉화산
12	젓재토성	아영면 성리-변암면 노단리
13	아막산성	아영면 성리
14	가산리산성	운봉면 가산리
15	이산산성	아영면 아곡리-변암면 논곡리
16	아곡리봉수대지	아영면 아곡리 봉화산
17	고남산성	운봉면 권포리
18	고남산봉수	운봉면 권포리
19	장교리산성	운봉면 장교리
20	음지성	운봉면 준향리
21	양지성	운봉면 준향리
22	노치산성	운봉면 주천리 수정봉
23	할미성	이백면 효기리-주천면 덕치리
24	할미성보	이백면 효기리-주천면 덕치리
25	정령치차단성	정령치-고리봉

<그림 2> 운봉지역 관방유적

<표 11> 운봉고원 제산성 현황



<그림 3> 전북 동부지역 산성의 분포와 오수~장수, 장수~무주, 장수~남원 간 산악철도 예정도

## 8. 친환경적 방목형 목장

### ■ 추진 배경 및 목적

- 소득수준의 향상,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 2012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닭, 돼지, 육계, 한우 및 젓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동물복지 농장 인증 축산물 시장 부가가치가 큼- 농가 관심 상승
- 도시 근교 공장 식 밀집사육 - 면역력 약화로 감염병 창궐
- 대안으로 친환경적 방목과, 산지 축산에 대한 관심 확대
- 성공사례- 안성 팜랜드
- 방목 시 산야초를 사료로 이용 사료 절감효과가 큼
- 전국토의 70% 산지 -효과적 이용 방안 대두
- 방목형 축산과 체험형 관광을 접합 새로운 관광 산업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

### ■ 추진계획

-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
- 지역 생산자 단체 운영을 원칙구성
- 법적·제도적 지원, 금융적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 방목 시 적합한 가축- 흑염소, 면양 등 소형 반추류 와 돼지
- 장수군 일대 -흑염소 사육, 축산과학원 운봉지소- 소·면양 사육, 지리산 일대 - 흑돼지 산지, 아영 지리산 낙농축협생축장 - 우유 육성우 방목.
- 편리한 숙박시설, 부대시설, 휴양시설 건립 - 정주성 강화
-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산악열차 시스템과 연계 추진 -접근성 향상)

## 9. 중앙 콘트롤 센터

- 관광산업의 문화관광부서의 일이 아닌 종합적사고를 필요로 하는 산업임
- 지역적으로 완주, 임실, 장수, 남원 지역 사업지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는 기구가 필
- 농림부, 문화부, 환경부, 국방부 , 철도청 등 관련 부처 전담
- 지역의 중간자 조직을 육성 -지역민이 자발적 유지·관리 유도

- 홍보, 민원 등을 일괄 처리

## 10. 체계적인 관광종사 인력 양성

- 명승지는 “몸”, 문화해설사는 “콧바람” 고목에 꽃이 피게 하는 것.
- 전북 관광관련학과 전주대학교(관광경영학과), 예원예술대학교(호텔관광경영학과), 호원대학교(호텔관광학부), 전북과학대학교(호텔 관광 바리스타학과)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경관관광에서 녹색관광·생태관광, 농촌형 전원관광과 스키, 윈드서핑, 등산, 마라톤 스포츠관광 등 관광객의 욕구가 세분화하고 다양화로 인해 재교육 강화
- 지역민도 하나의 관광종사자란 개념을 가지고 문화강좌, 역사강좌를 통해 지역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 강화(초등생도 자기 지역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도록)
- 전라북도 관광상품을 홍보·판매하는 관광회사 육성과 지원.

## V. 결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 청정산업, 21세기 고성장 산업 등 관광산업에 붙는 별명에 걸맞게 세계 관광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2019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로 성장하고, 세계 총고용의 8.4%가 관광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1994년 취임한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한으로 각 지방자치간의 치열한 경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관광산업 시설과 상품 면에서 타도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기존의 자원을 통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면 아름다운‘선(線)’을 만들자. 관광지에서 인근 관광지로 이동시 이동 자체가 관광이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특징적이고 체험 가능한 이동수단을 개발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 체류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지역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역을 정확히 각인 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접 지역은 문화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매우 유사해 자칫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통제수단을 가진 기구가 필요 예산, 시설적인 면에서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한다.

넷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시설은 사람의 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관광 종사자는 사람의 영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관광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학교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곽장근(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문화> 43권. 29~60
2. 김경숙(2013), 조선후기 察訪의 驛站 운영과 관직생활 ~ 19세기 초 金載一의 『默軒日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2,6, 3~36
3. 김봉규(2008) 국제회의 산업의 효율적방안: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2(1), 273~291
4. 김시중(2011). 온천방문객의 온천관광지 선택속성 중요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연구』, 45(1), 93~106.
5. 김용주(1996) 전북 임실군 오수개 테마관광지 조성. 지방행정 48(5). 103~108
6. 서승일, 문형석, 사공명(2014), 산악철도 도입 및운영을 위한 현안 및 대책 한국철도학회 철도저널 17(4). 30~33
7. 손상락 경남 낙후지역 바릿능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경남정책Brief 2011 ~3
8. 이기훈(201), 일제하 전라남도의 육산교통망 형성과 일상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87~122
9. 이수호, 정성봉, 김시곤(2012)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다각화 방안,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5. 745~751
10. 이원호(2004) 우리나라 낙후지역의 유형구분 및 개발수요의 분석. 應用地理, 27. 47~62
11. 이주영(2011)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를 결합한 유함형 어트랙션 테마파크 디자인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24(5). 1~6
12.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2013.
13. 정명희(2013). 2013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발전 연구원
14. 정성봉, 박민규, 남궁백규 등(2013), 철도폐선부의 효율적 활용방안
15. 정용해(2015) 온천리조트의 선택속성, 고객만족, 재방문의사 간의 구조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7(8). 159~180
16. 정치영(2009)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4(3), 2009.6, 260~281

17. 조동길, 최재용, 전용철. 2010. “폐고속국도의 생태복원 방안~영동선 192.4K(인천) 지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3(5): 38~50.
18. 최병운(1990). 제 2편 임실군의 지리와 연혁. 전라문화연구소연구보고서. 1990(2). 15~28
19. 한은진(2011). 온천 관광지의 시장세분화 및 수요결정요인 분석. 『관광연구』 , 26(4),681~703.
20. 허대중(1999) 전라북도의 컨벤션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품질시스템학회, <관광품질시스템연구> 5권, pp.145~170